

# “이젠 노마스크”… 유통가, 색조화장 마케팅 분주

## 실내 마스크 해제 유통가 표정

지역백화점, 뷰티워크 등 기획전 화장품 매출 신장… 기대감 고조  
“입학·봄 맞아 수요 더 늘어날 것”

“솔직히 즐기분한 것 반, 걱정 반이긴 한데 오늘은 저도 모르게 아침에 습관처럼 마스크를 쓰고 나왔어요. 그래도 곧 적응이 될 것 같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해서 화장 지워질까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오랜만에 화장품 좀 장만해보려고 왔어요.”

30일 오전 롯데백화점 광주점의 한 화장품 매장. 30대 이모씨는 이날 립스틱을 구매하기 위해 백화점을 찾았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첫날인 이날 매장을 찾은 고객들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비율은 전체의 20%가량으로 보였다.

직원들 역시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았지만, 곳곳에서 마스



30일 광주 동구 롯데백화점 광주점의 한 화장품 매장에서 고객이 색조 화장을 살펴보고 있다.

크를 벗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밝아 보였다.

정부가 이날부터 병원과 요양시설,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면서 광주지역 유통업계도 활기를 띠는 모습이다.

마스크 착용 권고 조치로 롯데백화점 광주점 역시 전 매장 자율적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고객들을 대면하지 않는 매장 직원들의 경우 마스크를 벗고 편하게 업무를 보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만, 라온지, 상담실, 휴게실 등 밀집도가 높은 공간의 경우 직원들의 마스크 착용 유지와 고객에 대한 마스크 착용 권고가 진행되며 식품관 조리직군의 경우에는 여전히 마스크를 의무 착용하도록 했다.

업종별로 차이는 있지만, 3년 만에 실내에서도 자유롭게 얼굴을 드러낼 수 있음에 따라 특히 화장품 등 관련 제품은 이미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기획전을 마련하고 대면 마케팅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화장품 상품군 전체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 신장했다. 광주신세계도 올 들어 이날까지 화장품 전체 매출이 지난해 1월보다 25% 신장했으며 맥, 바비브라운 등 대표 색조화장품 브랜드의 경우 11% 신장했다고 밝혔다.

수개월 전부터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면서 이미 유통가에서

는 화장품 매출이 증가하고 있었다는 분석이다.

이에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오는 2월3일부터 12일까지 ‘Blooming 뷰티 워크’ 행사를 진행하고 브랜드별 단독 기획전, 금액대별 감사품, 무료 메이크업 서비스 등 화장품 수요 고객층을 잡기 위한 다양한 혜택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구매 금액대별로 롯데상품권을 증정하는 사은행사도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화장품 담당 김영미 리더는 “지난해 4월부터 화장품 브랜드에서 테스트들이 다시 등장하면서 점차 수요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었는데 실내 마스크 해제로 최근에는 확실히 고객들이 늘어났다고 느껴진다”며 “앞으로 졸업식과 입학식 등이 다가올 것이고 봄을 맞아 립 제품이나 쿠션 등 색조 메이크업 제품의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글·사진·기획재 기자 jihye.kwak@jnilbo.com

## SGI서울보증, 광주금남로지점 신설

### 지역경제 맞춤형 보증지원 확대

국내 최대 종합보증회사인 SGI서울보증은 광주지역 보증지원 확대를 위해 2월 1일 광주금남로지점을 신설한다고 30일 밝혔다.

SGI서울보증은 과거 지역 내에 다수의 지점을 운영했으나, IMF 등을 거치며 지점을 통폐합했으며, 최근까지 상무지구에 위치한 광주지점 1곳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광주지역 경제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고객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구도심 지역인 금남로에 새로운 지점을 신설했으며, 이를 계기로 기업간 각종 계약을 보증해주는 이행보증보험부터 서민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전세금보장신용보증 등 다양한 상품으로 서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로 54주년을 맞는 SGI서울보증은 지난 2021년말 기준 보증잔액 420조원, 총자산 10조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보증기관으로, 지난해에는 광주와 호남 지역 점포를 통합 관리하는 광주호남본부를 신설한 바 있다.

유광열 SGI서울보증 대표이사는 “광주 지역과 기업·서민에 대한 밀착 보증 서비스 뿐만 아니라, AI·자율주행 등 광주 미래 6대 핵심사업에 대한 보증지원도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권범 기자

## 지난해 4분기 광주·전남 주력산업 수출 ‘희비’

### 광주세관 수출동향

광주, 가전 ↑·반도체 ↓  
전남, 크레인 ↑·철강 ↓

광주와 전남지역 수출을 주도하는 주요 업종들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30일 광주본부세관이 발표한 2022년 4분기 광주·전남지역 수출 동향에 따르면 4분기 광주지역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3% 증가한 43억5400만 달러, 전남지역은 9.9% 감소한 108억17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광주·전남 수출은 지역 주력산업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광주지역의 주력산업 중 가전제품(10.6%)은 전분기 대비 수출이 증가한 반면 반도체(14.3%)·타이어(11.7%)·

주형(10.5%)·자동차(0.5%)는 감소했다.

전남지역의 경우 크레인(2.6%)은 전분기 대비 수출이 늘어난 반면 철강제품(43.3%)·선박(19.2%)·화학품(18.0%)·석유제품(10.1%)은 줄었다.

수출국별로는 광주지역의 경우 전분기 대비 중국(21.1%)·싱가포르(19.6%)·대만(4.6%)·미국(3.7%)·말레이시아(3.3%) 등 주요 수출국으로의 수출이 모두 감소했다.

전남지역은 전분기 대비 호주(7.5%)로의 수출은 증가했고, 일본(28.0%)·미국(20.4%)·베트남(14.5%)·중국(8.0%)으로의 수출은 감소했다.

지난 한해 광주지역 수출은 전년대비 8.1% 증가한 179억4700만 달러, 수입은

20.7% 늘어난 97억1400만 달러이며 이에 따른 무역수지는 82억33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전남지역 수출은 전년대비 15.5% 증가한 494억3700만 달러, 수입은 34.9% 증가한 497억2600만 달러이며 이에 따른 무역수지는 2억8900만 달러 적자를 보였다.

지난 한해 광주·전남 주력산업 수출은 광주의 경우 반도체(38.0%)·타이어(14.6%)·주형(38.9%)은 전년대비 증가했고, 가전제품(13.9%)·자동차(0.6%)는 감소했다.

전남의 경우 크레인(165.5%)·석유제품(67.6%)·선박(6.0%)은 전년 대비 수출이 늘었고, 철강제품(10.2%)·화학품(5.5%)은 줄었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

## 유담호텔, 발렌타인데이 패키지 출시

유담호텔은 연인들을 위한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다양한 패키지 상품과 이벤트를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유담유블레스호텔 제주는 달콤한 페레로로쉐 초콜릿이 제공되는 ‘스위트로맨스 패키지’를 출시했다. 패키지 고객에게는 초콜릿과 함께 와인, 조식 뷔페 이용권이 제공된다.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즐기고 싶다면 함덕 바다를 감상하며 따뜻한 자쿠지 스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프라이빗 모던로맨 패키지’도 눈여겨볼 만하다.

유담유블레스호텔 제주는 2월 한 달간 투숙객을 대상으로 조식 1인, 생맥주, 미니바를 무료로 제공하며 다가오는 정월대보름에는 오곡밥 조식 서비스와 부럼깨물 기세트 증정, 대보름 과거시험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여수 유담마리나호텔&리조트는 발렌타인데이를 겨냥해 ‘로맨틱 홀리데이 패키지’를 선보인다. 해당 패키지는 오션뷰 객실 고품배정과 조식 뷔페, 대형 오션인피니티풀입장권이 제공되며 스튜디오 여수 섀프사진관 촬영권, 호텔세라 부케 한정판 와인 증정, 여유롭게 여행을 마무리할 수 있는 레이트 체크아웃 혜택도 포함



돼 있다.

광주 유담부티크호텔&레지던스는 특급호텔 파티세가 만든 수제 파베 초콜릿을 판매한다. 호텔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합리적인 가격에 객실 예약과 파베 초콜릿을 맛볼 수 있는 실속형 로맨틱 패키지도 만나볼 수 있다.

광주 호텔의 대표 레스토랑인 플로라 레스토랑은 2월에도 씨푸드 디너 뷔페 랍스터, 대게, 생선회 등과 함께 달콤한 제철 과일 딸기를 테마로 한 디저트 코너를 운영해 로맨틱한 시간을 선사한다. 딸기 화이트 초콜릿 무스, 딸기 비스킷, 딸기 타르트, 판나코타 등 평소 맛보기 어려운 독특한 딸기 디저트를 맛볼 수 있다.

유담부티크호텔 역시 2월 한 달간 투숙 시 조식 1인, 미니바를 무료로 맛볼 수 있고 스위트룸 예약 시 각종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 광주상의, NCS 기업활용 컨설팅 ‘성과’

### 작년 중소기업 30곳 지원 직무중심 인적자원 개발 기여

광주상공회의소가 산업현장 직무중심의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업활용 컨설팅 사업이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다.

30일 광주상의에 따르면 NC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표준화한 개념으로,

### 중기부, ‘스마트공장 고도화’ 구축 지원

기업들의 본격적인 제조 혁신을 위해 스마트공장 고도화 구축 지원 사업이 진행된다. 기초단계에서 고도화 1단계인 ‘실시간 수집·분석단계’를 거쳐 고도화 2단계인 ‘실시간 공장제어 단계’에 이르는 과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선도형 스마트공장(정부일반형) 구축지원사업’에

기업에서 이뤄지는 전체 직무를 NCS를 활용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채용, 인사, 교육, 평가 등 다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체계적인 인사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광주상의는 지난해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30개사를 선정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팀을 매칭한 후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해왔다.

NCS 기업활용 컨설팅은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의 중소기업의 인재 채

용, 근로자 교육 훈련과정 개발 등 기업의 핵심적 인재육성 체계 구축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가정책사업으로, 광주상의는 지난 2014년부터 9년간 총 151개사에 대한 NCS 컨설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이 인적자원 개발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해오고 있다.

컨설팅 사업은 전액 무료로 진행되며 올해도 30개사를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광주상의 홈페이지(<http://www.gjcci.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광주상의 협력사업본부(062-350-5893)로 문의하면 된다.

최지혜 기자

개사가 선정될 예정이다.

올해는 양적 확대 중심의 기초단계 지원을 지양하고 고도화 중심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서면평가를 통해 1.5배수를 우선 선별하고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계획 수립을 도와주는 기획지원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최종적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뉴시스